

“4차산업혁명 시대 고령친화산업 발전 위한 공동 연구”

-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업무협약 체결



▲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가 17일(금)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오창명 센터장,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김규호 센터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센터장 오창명 의생명공학과 교수)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센터장 김규호 을지대학교 교수)와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공동 코호트 연구* △산업육성 정책개발 및 공동사업 기획 △기관 보유 인프라 공유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코호트는 일정 시점에 지역, 직업 등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코호트 연구는 이러한 코호트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식습관 등의 기저조사를 하고 난 뒤, 이들을 장기간 추적 조사해 질병 발생과 건강상태 등의 인과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역학 연구다.

협약식은 두 기관의 센터장 및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정책과 박형주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7일(금)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두 기관은 200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각 지역 내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협약은 고령친화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동안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생태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오창명 센터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다양한 지능화 기술에 바탕을 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수용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과 공동 R&D, 관련 정책 및 제도연구 등 고령친화산업 융합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융합기술과 장비, 인력 등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김규호 센터장은 "혁신센터는 사업화 지원, 기술 융복합 R&D, 시니어리빙랩 운영 등 고령친화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KOLAS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고령친화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고령친화산업 혁신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37(행암동 156)에 위치한 지스트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약 470평 규모의 체험 공간으로, 고령친화제품 수요 창출 및 산업지원·육성을 위한 고령친화 관련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기획전시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리빙랩(생활실험실) 기반 연구시설을 새로 조성하여 지난 6월 2일 재개관했다.

체험관은 4차산업혁명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고령친화융합 산업기반 조성과 기술 사업화를 위한 허브로서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강화 및 수익창출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왼쪽부터) 광주광역시청 인공지능산업국 미래산업정책과 이상윤 주무관,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홍남표 부센터장, 광주광역시청 인공지능산업국 미래산업정책과 박형주 의료산업팀장,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오창명 센터장,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김규호 센터장·정덕영 부센터장·한장원 총괄팀장, 지스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김민석 책임연구원